

2012. 10. 1 제296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세계도시동향

2012. 10. 1 제296호

## 헤드라인뉴스(도시계획·주택)

1. 각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2030 in your Village Master Plans’ 수립 (호주 시드니市)

## 산업·경제

2. 영국에서 최대 규모로 350개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지역화폐 유통 시작 (영국 브리스틀市)  
(토막기사) ‘제1회 세계관광도시연합회의’ 개최 및 ‘72시간 무비자’ 추진 (베이징市)

## 건강·복지

3. ‘성공요인으로서 가정’ 프로젝트 시행 이후 가족친화적인 기업 대폭 증가 (독일)  
(토막기사) 담배꽂초 버리다 적발되면 금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연 성공 시 상품권 증정 (영국 켄트市 메이즈스톤區)  
(토막기사) 학교 내 왕따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조사 실시 (도쿄都)

## 방재·안전

4. 지역 방재계획 개정안 작성 (도쿄都)

## 도시환경

(토막기사) 대기권에서 기후변화를 분석·예측할 수 있는 비행기 개발 (독일)

## 도시교통

(토막기사) 보행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설 설치 (독일 힐데스하임市 외)

(토막기사)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사고건수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미국 필라델피아市)

## 도시계획·주택

(토막기사) 불합리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개혁 추진 (런던市)

(토막기사) 도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중심 상업가로 활성화  
방안 추진 (런던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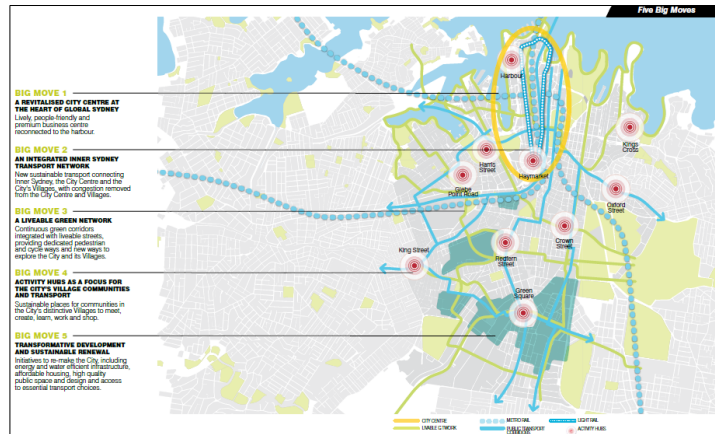
## 헤드라인 뉴스 (도시 계획 · 주택)

### 1. 각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2030 in your Village Master Plans’ 수립 (호주 시드니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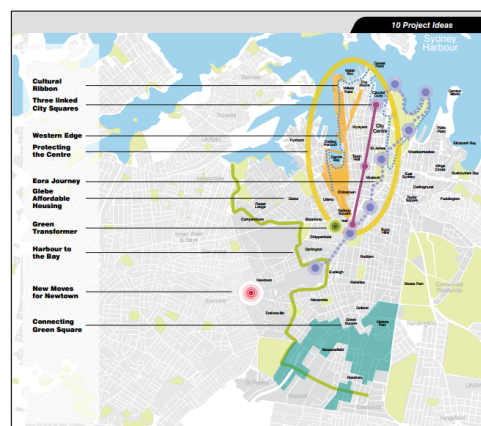
- 호주 시드니市는 마을단위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제를 수집해 이들을 토대로 미래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마을단위로 마련한 예산 편성안 및 개별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음. 2012년 3~4월에 시내 10개 마을단위(CBD & Harbour, Chinatown & CBD South, Crown & Baptist Streets, Glebe Point Road, Green Square & City South, Harris Street, King Street, Macleay Street & Woolloomooloo, Oxford Street, Redfern Street)로 워크숍을 개최해 각자 자신의 근린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
- ‘2030 in your Village Plans’는 기존에 시행했던 ‘Local Action Plan(2007~2010)’을 기초로 시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30 in your Village plans는 계획의 공간단위별·부문별·역할별 기능, 성과와 목표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 (<http://www.sydney2030.com.au/in-your-village>)를 별도로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 이번 장기계획은 ‘녹색성장과 글로벌도시, 그리고 소통’을 슬로건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물리적 공간, 교육, 경제, 커뮤니티, 비전, 개발, 도시정부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함.
  - 계획의 형태와 구성이 기존 도시종합계획 혹은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기존 계획이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성장에 치우쳤던 데 비해 이번 계획은 문화와 도시역사, 시민과 정부, 시민과 시민, 시민과 기업 간의 소통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함.

- 이번 종합계획은 다음 10가지의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① 2030년까지 1990년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저감, 2050년까지 70% 저감, ② 2030년까지 지역에서 자급하는 전력의 양을 전체 100%, 수자원의 공급은 10% 달성, ③ 2030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최소한 13만 8000세대를 공급하고 추가로 4만 80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 건설, ④ 2030년까지 전체 7.5% 이상의 주택은 NGO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 ⑤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⑥ 도심 근무자의 80%가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도보환경 조성, ⑦ 도심 전체 통행의 10%는 자전거, 50%는 도보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⑧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신선한 식료품, 보육서비스, 의료 및 레저서비스, 교육·문화시설과 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⑨ 모든 시민이 도보로 3분 이내에 녹지, 공원, 해변 혹은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⑩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전체 45% 이상의 시민이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10개의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로 물리적 계획 ‘Big Move 5’를 수립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① 하버 지역 프리미엄급 비즈니스센터 조성, ② 시드니 중심부 교통혼잡요인 제거, ③ 녹도(綠道) 및 녹지공간의 연계 확장, ④ 커뮤니티단위의 교육·쇼핑·문화생활 공간 확보·확충·보강, ⑤ 에너지효율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양질의 공공공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함.



- 市の 이번 장기계획은 10개 목표, 5개 물리적 계획, 10개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획내용의 핵심인 10개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음.
- ① 문화 리본, ② 3개 도시광장 연계, ③ 도심 보행로, ④ 지불 가능한 저가 주택, ⑤ 녹지공간 및 녹도, ⑥ 하버에서 항만까지의 연계, ⑦ 도시 재생, ⑧ 녹색 연계망, ⑨ 도심 프로젝트, ⑩ 웨스턴 에지 재구성



([www.cityofsydney.nsw.gov.au/Development/LocalActionPlans/Default.asp](http://www.cityofsydney.nsw.gov.au/Development/LocalActionPlans/Default.asp))

([www.sydney2030.com.au/in-your-village](http://www.sydney2030.com.au/in-your-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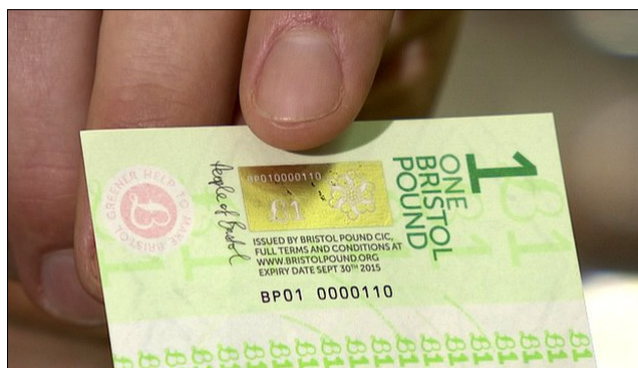
## 산 업 · 경 제

### 2. 영국에서 최대 규모로 350개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지역화폐 유통 시작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의 지역화폐, 브리스틀 파운드(£B)가 최근 유통에 들어감. 당초 2012년 5월에 유통되기로 했으나 지역화폐 사용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면서 시기가 늦어졌음. 영국에서는 최대 규모로 350개 이상 사업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음.



【노예해방 운동가 Hannah More가 그려진 브리스틀 지역화폐 10파운드 (약 1만 8000원) 지폐】



【브리스틀 화폐 1파운드(약 1800원) 지폐】

- 브리스틀화(貨)는 홀로그램 인식이 가능하며 레이저로 새긴 보안번호

를 보호하기 위해 금색 포장으로 마무리했음. 종이로만 유통되던 기존의 지역화폐에 비해 온라인과 휴대전화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임.

- 소규모 영세 상권뿐 아니라 지역 내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과 재분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다양한 계층이 호응하였기 때문임.
  - 브리스틀 파운드는 소비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틀 파운드를 받은 지역 가게에서 도매 상품이나 판매제품의 재료를 구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산업뿐 아니라 유통, 제조, 농업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지역화폐 유통으로 인한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함.
- 브리스틀 파운드는 영국 파운드와 1:1로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가졌으나 사업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브리스틀 파운드를 취급하지 않는 지역 외 사업장과 거래를 하려면 3%의 수수료를 내고 영국 파운드화로 교환한 후 사용해야 함.
- 市와 관련 기관은 도매상권과 서비스업이 브리스틀 파운드를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식품 도매 및 유통업체인 Essential社를 영입해 브리스틀 파운드 사용업체에 등록시킴. 이로써 지역화폐 유통에 찬성한 사업장 중 카페, 식당 등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됨. Essential社는 영국 전역을 상대로 영업 중인 식품유통기업임.
- 브리스틀市가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 시장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반면 지역화폐를 도입한 다른 도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글로스터셔주 스트라우드(Stroud)市는 야심 차게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시행 초기와는 달리 지역화폐 발행매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2011년에는 사업 초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0파운드(약 725만 원)만 발행됨. 스트라우드 시민은 지역화폐가 꾸준히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불편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지역화폐 제도가 시행 초반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옴.
- 브리스틀에서는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기존의 지역화폐 제도에서 벗어나 市와 지역 금융기관인 브리스틀 신용조합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예금보증 지원도 확보함.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온라인 금융 및 세금 납부와 연계한 지역화폐가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존할지 귀추가 주목됨.

([www.bbc.co.uk/news/uk-england-bristol-19627592](http://www.bbc.co.uk/news/uk-england-bristol-19627592))

#### ‘제1회 세계관광도시연합회의’ 개최 및 ‘72시간 무비자’ 추진 (베이징市)

- 베이징市는 2012년 9월 14, 15일 양일간 ‘제1회 세계관광도시연합회의’를 개최함. 이는 베이징市의 제안에 여러 국제도시가 동참하면서 조직이 결성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베이징에서 개최한 것임. 이 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주체로 하는 비영리적인 성격의 국제관광조직임.
- 이번 회의에는 세계 22개국 47개 도시 및 11개 기관이 참석함. ‘관광은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주제 아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논의함. 참가도시들은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방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기념품상’, ‘가장 인기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상’ 등 7개 부문 상을 시상함.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10대 관광

도시 미식(美食)상'은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 등이 공동 수상함. 향후 회의는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매년 세계 각지로 돌아가며 개최될 예정임.

- 한편 베이징시는 이번 회의에서 '72시간 무비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市 부시장은 이번 회의 이후 국내외 관광도시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72시간 무비자 정책이 추진되면 3년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현재의 2배가 넘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2011년 베이징시의 외국인관광객은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관광객은 2억 명을 넘어섬. 관광업 수입은 3200억 위안(약 56조 9000억 원)에 달해 市 GDP의 7% 이상을 차지함. 현재 외국인관광객의 베이징 관광소비 수준은 국내 관광객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남.

- 市는 또한 국내의 관광 관리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많은 관광기업의 고급 관리인력이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초로 관광대학을 설립해 베이징시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北京日报, 2012. 9. 16)

## 건 강 · 복 지

### 3. '성공요인으로서 가정' 프로젝트 시행 이후 가족친화적인 기업 대폭 증가 (독일)

- 독일연방 인사관리자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근무조건을 도입한 데 이어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5월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독일 인사관리자연합은 '성공요인으로서 가정'(Erfolgsfaktor Familie)이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752개 기업의 인사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독일의 기업은 가정과 직장의 병행을 돕는 근무방식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공요인으로서 가정’이라는 기업경영 프로그램은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독일경제인연합회, 독일상공회의소, 독일기능장중앙협회, 독일노동조합연합이 가족친화성이 독일경제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도록 한다는 공동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임. 이는 직장을 가족친화적인 노동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 직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직업만족도와 근무성과를 높이고, 기업도 우수 인재를 계속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임.
  - 가족친화적 근무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 가족친화적인 근무시간제도인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 각자의 가정생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752개 기업의 90%가 확인시켜 줌.
  - 가족친화적인 근무시간제도는 자녀가 있는 직장인, 특히 직장여성의 가정과 직업의 병행, 직장에서 여성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평가됨. 이를 위해 시간제 근무의 가치를 노동권 안에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약 4분의 3이 직원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근무시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기업만이 아니라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설문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67%가 자신의 회사가 그동안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인사관리정책도 가족친화성을 우선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답함.

-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업 인사관리 책임자 대부분이 간부급 등 고급인력 유치 시 유연한 근무시간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점임. 이는 미래의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에 있어 가족친화적인 근무조건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임.
- 또한 많은 기업이 앞으로 직원의 통신단절 시간(Zeiten der Funkstille)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것이 도입되면 직원들은 퇴근 시간 후나 휴가 기간에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에 의해 회사와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됨.

- 연방정부는 ‘성공요인으로서 가정’ 프로젝트 전용 인터넷사이트([www.erfolgsfaktor-familie.de](http://www.erfolgsfaktor-familie.de))를 개설해 가족친화성을 추진하는 기업의 성공사례와 경험, 관련 연구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www.bmfsfj.de/BMFSFJ/familie,did=188356.html](http://www.bmfsfj.de/BMFSFJ/familie,did=188356.html))

([www.erfolgsfaktor-familie.de/default.asp?id=70&pid=623](http://www.erfolgsfaktor-familie.de/default.asp?id=70&pid=623))

([www.karriere.de/beruf/forderung-nach-funkstille-in-der-freizeit-164895](http://www.karriere.de/beruf/forderung-nach-funkstille-in-der-freizeit-164895))

담배꽂초 버리다 적발되면 금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연 성공 시 상품권 증정 (영국 켄트시 메이드스톤區)

- 영국 켄트시 메이드스톤(Maidstone)區는 담배꽂초나 담뱃갑을 버리다 적발되면 금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금연에 성공할 경우 보건기관과 공동으로 상품권까지 증정하기로 함. 대부분의 금연정책이 담뱃값을 높게 책정하고, 흡연 시 벌금을 물리며, 금연구역을 확장하는 등 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으나 메이드스톤區는 채찍보다 당근에 가까운 금연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끄.
- 금연교육 대상은 담배꽂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야 하는 시민임. 최

근 區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범죄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된 행위 중 97%가 담배꽂초 등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됨.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범칙금은 75파운드(약 13만 6000 원)임.

- 적발된 시민은 범칙금 대신 매주 1시간씩 7주간 금연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7주 교육을 모두 마친 다음 금연에 성공할 경우 50파운드(약 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음. 처벌 대신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금연 시 상을 주는 이번 사업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區는 금연교육과 상품권 부여 등에 들어가는 재원을 지역보건소와 함께 마련함. 금연을 위해 시민을 규제하는 대신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금연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한 지역보건소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이번 정책 도입이 가능해짐. 현재 사업 시작 단계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금연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역 내에서 시범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 중임.

([www.bbc.co.uk/news/uk-england-kent-19470809](http://www.bbc.co.uk/news/uk-england-kent-19470809))

#### 학교 내 왕따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조사 실시 (도쿄都)

- 도쿄都 교육위원회는 어린이 및 초·중·고생의 왕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都 내 모든 공립학교 2184개교(초등학교 1304개교, 중학교 631개교, 고등학교 189개교, 특별지원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왕따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조사’를 2012년 7월 실시함.
-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아동 및 학생이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으로부터 학교 안팎에서 심리적·물리적인 공격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경우(왕따로 인지한 건수)와 현 시점에서는 왕따로 인지되지는 않지만 아동·학생 및 주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통해 왕따로 의심되는 경우(왕따로 의심되는 건수)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함.

- 다음 결과표의 내용 중 (1)의 교육위원회에 이미 보고된 건수라 함은 사건이 심각한 경우나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대응이 필요해 학교가 교육위원회에 이미 보고한 건수를 의미하며, (2)의 ①은 조사시점에는 대응이 불가능해 조사 후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인 건수, ④는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소, 경찰 등 학교 이외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는 건수를 의미함.

– 이번 조사결과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각 학교의 확인은 물론 아동 및 학생 면담, 보호자 확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내용 확인과정을 거쳐 공개할 예정임. 또한 이번 결과에 대한 대응상황도 현재 추적조사 중에 있어 10월 초에 이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임.

【도쿄都 왕따 실태 파악 긴급조사 결과(2012년 7월 31일 현재)】

학교 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 학교	계
학교 수	1,304교	631교	189교	60교	2,184교
(1) 왕따로 인지된 건수	1,864건	1,588건	53건	30건	3,535건
이 중 소관 교육위원회에 이미 보고된 건수	509건	354건	7건	3건	864건
(2) 현 시점에서는 왕따로 인식되지 않지만, 아동·학생 및 주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왕따로 의심되는 경우	4,205건	2,880건	831건	56건	7,972건
① 이 중 조사시점에서는 대응하지 않았으나 향후 대응할 건수	102건	93건	32건	0건	227건
② 이 중 상황에 대해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는 경우	1,532건	908건	40건	18건	2,498건
③ 이 중 교원 등이 상황파악을 포함해 대응 중에 있는 건수	3,546건	2,537건	607건	50건	6,740건
④ 이 중 기타 대응을 하고 있는 건수	144건	72건	9건	4건	229건

주: (2)의 ①~④는 복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2)를 초과할 수 있음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9/20m9d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9/DATA/20m9d101.pdf>)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9/DATA/20m9d102.pdf>)

## 방 재 · 안 전

### 4. 지역 방재계획 개정안 작성 (도쿄都)

- 도쿄都는 동일본 대지진(2011. 3. 11)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쿄의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도쿄都 방재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2012년 4월에는 새로운 ‘수도(首都) 직하지진 등에 의한 도쿄의 피해 상정’을 작성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2012년 9월 12일 ‘도쿄都 지역 방재계획’ 2012년 개정안을 작성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들어감.
-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은 ① 대책마다 과제 및 도달목표를 명시해 방재 관계기관과 도민이 함께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② 지역의 방재력 향상 및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의 대책마다 예방·대응·복구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며, ③ 보다 기능적인 계획이 되도록 재해 발생 후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의 내용을 확충·강화하는 것임.
- 이번 都 지역 방재계획에서는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를 연계한 지진에 강한 마을 만들기, 도민의 생명과 수도기능을 지키는 위기관리체계 만들기,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도쿄를 조기에 재생하는 시스템 만들기의 3가지 관점(기본방향)에서 12개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계획은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都 방재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 <방재 인근 조직의 활동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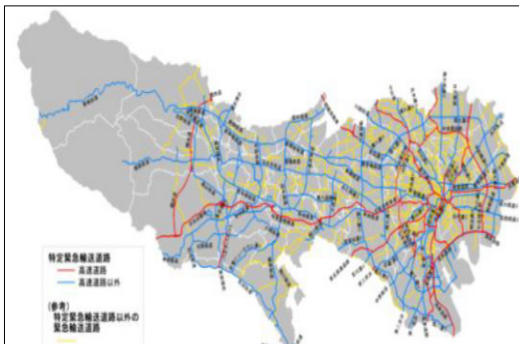


방재지도 작성



맨홀 화장실 설치 훈련

### <긴급수송도로 접도(接道) 건물의 내진화>



특정긴급수송도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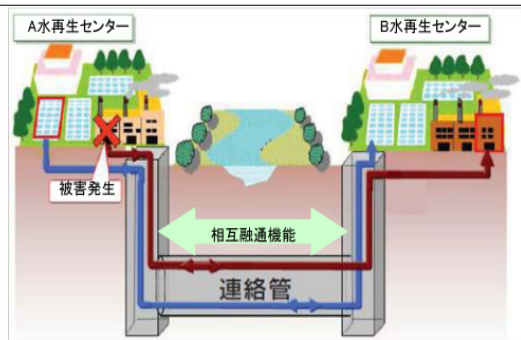


고베대지진 발생 시 접도지역 피해사례

### <에너지 및 라이프라인 확보>



자립·분산형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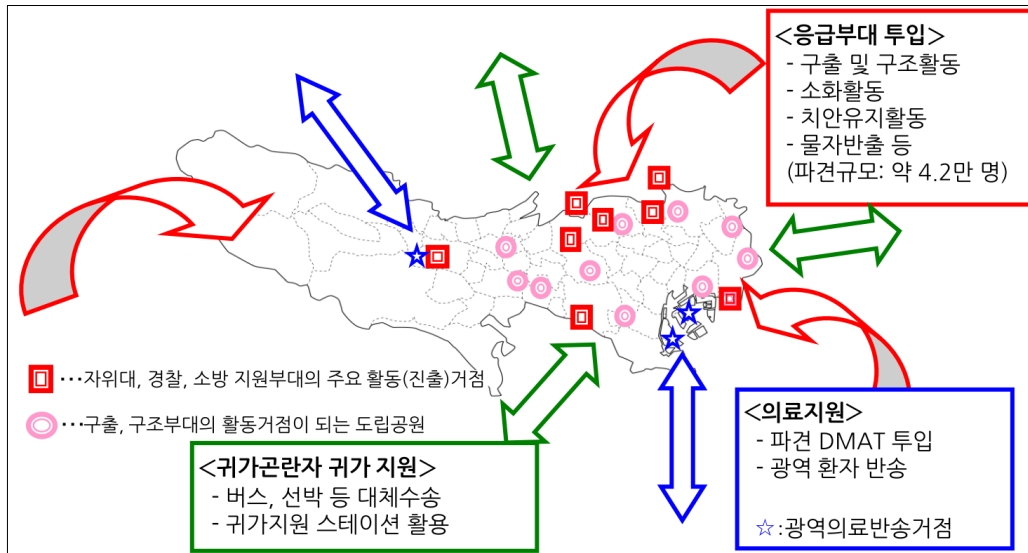
물재생센터 네트워크

【도쿄都 전역에서 공통으로 추진되는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를 연계한 지진에 강한 마을 만들기 대책】



【도쿄都 지역 방재계획(2012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기본방향	목표	세부 대책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연계한 지진에 강한 마을 만들기	1) 도민과 지역의 방재력 향상	- 도심에 의한 자조(自助) 촉진 - 인근 조직 등의 공조 추진 - 방재단체의 체계 강화 - 사업소의 방재체제 -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2)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실현	-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불연화 - 주택 및 건물의 내진화 촉진
	3) 교통네트워크 및 라 이프라인 등 확보	- 교통네트워크 확보 - 라이프라인의 백업 - 에너지 확보
	4) 해일 등 대책	- 호안(湖岸), 방조제 등의 내진성 및 내수성 강화 - 재해예측도(hazard map) 작성 지원 등 비물리 적 대책 - 도서지역 해일 대책
도민의 생명과 수도기능을 지키는 위기관리 체계 만들기	5) 광역 연계를 통한 응급대응력 강화	- 도쿄都의 초동태세 확충 및 강화 - 수도권 지자체(9개 도·현·시)와의 광역연계 강화 - 응급활동거점 정비
	6) 정보통신 확보	- 방재기관 간 정보연락체계 - 방재기관과 도민 간 정보 제공 - 도민 상호통신 확보
	7) 의료구호 등 대책	- 의료체계 정비 - 의약품 및 기자재 확보 - 재해거점병원 정비 - 사체(死體) 처리
	8) 귀가곤란자 대책	- 일제 귀가 억제 - 귀가곤란자 대상 정보제공체계 정비 - 일시체재 시설 확보 - 귀가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도쿄를 조기에 재생하는 시스템 만들기	9) 피난자 대책	- 피난체계 정비 - 피난장소 정비, 피난소 안전 강화 - 피난소 관리운영체계 정비
	10) 물류·비축·수송 대책 추진	- 음료수, 음료, 생활필수품 확보 - 보관창고 및 수송거점 확보 - 수송수단 확보
	11) 방사성물질 대책	- 도쿄都의 초동태세 구축 -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추진
	12) 주민생활의 조기 재건	- 주민 생활재건의 조기화 - 분노처리 등 화장실 기능 확보 - 파편과 쓰레기 처리



【광역적인 연계를 실시하는 대책】

([www.metro.tokyo.jp/INET/BOSHU/2012/09/22m9c1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2/09/22m9c100.htm))

([www.bousai.metro.tokyo.jp/japanese/tmg/h24-soan.html](http://www.bousai.metro.tokyo.jp/japanese/tmg/h24-soan.html))

## 도 시 환 경

대기권에서 기후변화를 분석·예측할 수 있는 비행기 개발 (독일)

- 독일은 환경과 기후 연구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고(高)고도 연구비행기를 개발하고 첫 비행에 들어감. 독일연방 교육과학부는 지속적인 발전 관점에서 극단적인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예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년간 바이에른주, 막스플랑크연구소, 헬름홀츠연구센터, 윌리히연구소, 칼스루에 연구소, 독일항공우주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새로운 기후연구 비행기 개발에 착수했음. 최근 완성된 高고도 연구비행기 HALO(High Altitude and Long Range Research Aircraft)는 2012년 8월 20일 과학자들에 의해 첫 연구비행에 나서게 됨.

- HALO는 고도 15km까지 대기권에 진입해 그곳에서 기후를 측정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고고도 연구비행기임. HALO의 탁월한 비행능력과 측정력은 환경과 기후 연구를 위한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됨. 3톤의 Payload(하중)를 가지며, 8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짐. 기체(機體)에는 공기 흡입배출기, 원격탐사를 위한 창이 있으며 날개에는 과학장비가 장착되어 있음. 특수 제작된 감지기와 데이터 등록 및 분석기는 비행 동안 연구자에게 대기층의 구성과 오염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함.
- HALO는 조만간 첫 연구 미션에 나설 예정임. 첫 연구는 대류권과 성층권의 구성과 변화에 관한 조사임. 아프리카 서안에 있는 섬인 카보베르데 공화국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여름에서 가을로의 계절 변화 동안 대류권의 구조 변화를 측정하게 됨.
- HALO의 총개발비로 7400만 유로(약 1066억 원)가 들었고, 이 중 독일연방 교육과학부가 4800만 유로(약 700억 원)를 지원함. HALO의 개발로 극단적인 기후상황과 같은 기후와 환경 문제에 해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독일은 대기권 연구와 지구 관찰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bmbf.de/press/3328.php](http://www.bmbf.de/press/3328.php))

([www.reisenews-online.de/2012/08/23/halo-flugzeug-soll-die-atmosphaere-erkunden/](http://www.reisenews-online.de/2012/08/23/halo-flugzeug-soll-die-atmosphaere-erkun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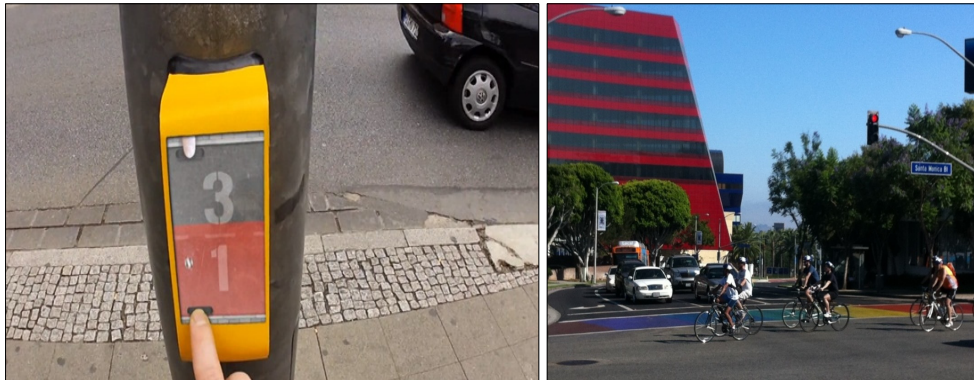
## 도 시 교 통

보행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설 설치 (독일 힐데스하임市 외)

- 시민들이 보도 및 거리에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보행의 즐거움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행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독일의 힐데스하임(Hildesheim)市는 신호등 앞에서 무료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을 위해 신호등에 게임기를 설치해 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

는 사람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보행자가 적색신호 동안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오락기는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탁구 형태의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으며 녹색신호가 켜졌을 때는 남은 시간이 표시됨. 이 게임기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보행친화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현재는 연구단계에 있으며 전면 설치를 위해서는 보행안전 등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市와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기존 하얀색의 횡단보도 라인 대신에 무지개색을 이용해 횡단보도 라인을 그려 화창한 날씨와 조화되도록 해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
- 횡단보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은 보행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음.



【신호등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해 건너편 시민과 게임을 즐기는 모습(왼쪽).  
산타모니카市의 무지개색 횡단보도(오른쪽)】

(<http://www.theatlanticcities.com/design/2012/09/fun-crosswalk/3164/>)

(<http://www.alpha-ville.co.uk/pick-of-the-week-63-streetpong/>)

(<http://www.subwayjoyride.com/2012/07/17/wehos-lickably-fun-rainbow-crosswalk/>)

##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사고건수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미국 필라델피아市)

- 미국 필라델피아市에서는 지난 10년간 자전거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고건수와 사망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필라델피아市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1998년 1040건에서 2010년 553건으로 50% 감소함. 사망자 수 또한 2002년 6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유사한 사례로, 미국 오리건州 포틀랜드市의 자전거 관련 사고건수 또한 이용자가 2배 증가했음에도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학계에서 2003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건수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안전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반대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더 많이 늘려야만 함.
  - 현재 필라델피아의 자전거도로는 350km에 이르며 향후 480km에 이르는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자전거 통행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2%에서 5%까지 높일 계획임.

([http://articles.philly.com/2012-09-17/business/33881208\\_1\\_bike-sales-bike-lanes-bicycle-coalition](http://articles.philly.com/2012-09-17/business/33881208_1_bike-sales-bike-lanes-bicycle-coalition))

## 도시계획 · 주택

### 불합리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개혁 추진 (런던市)

- 런던市는 국가 정책과 연계해 불합리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개혁을 최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세입자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과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여건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이를 위해 市 주택도시재생위원회는 현재 런던 내 85만 세대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임. 현재 런던 내 4개 주택 중 하나는 민간 임대주택이며, 민간 임대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런던 내 민간주택은 이전에 공영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저소득층, 무주택자, 저임금 가정, 사회적 빈곤층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주택보조금의 형태로 매년 4억 파운드(약 7250억 원)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동시에 민간 임대주택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市 주택도시재생위원회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민간 임대주택이 안전하고 더 나은 생활표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市가 검토하는 사항은 ① 런던 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특징, ②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한과 책임, 주택의 질, 주택표준, 경제성에 대한 다른 주택시장과의 비교 분석, ③ 서민형 임대시장을 조성·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상태, 서민형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④ 중앙정부, 런던市, 런던 내 자치구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개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등임. 이번 조사 및 검토 과정은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임.

([www.london.gov.uk/private-rented-sector](http://www.london.gov.uk/private-rented-sector))

### 도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중심 상업가로 활성화방안 추진 (런던시)

- 런던의 강남 도심에 위치한, 쇠퇴한 엘리펀트 & 캐슬(Elephant & Castle) 지역을 대상으로 45층 높이의 고층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개발업자들이 최근 런던시에 요청함. 엘리펀트 & 캐슬 지역은 도심 부근에 위치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과 빈번한 범죄, 열악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논의돼 왔음. 최근 런던시는 45층의 고층건물과 새로운 극장 및 주택 건설을 통해 개발업자들이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이 재생사업은 시 소유의 공공용지에 479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발판을 제공하고 침체된 타운센터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 교통인프라 개선, 극장 및 카페와 같은 문화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됨. 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 소유의 공공용지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주택 공급, 경제성장 등에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을 실행할 민간업자를 모으고 있음.
  - 시는, 현재 계획 중인 고층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 버려진 공공용지를 재활용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를 위한 서민주택 공급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엘리펀트 & 캐슬 자치구는 침체된 도심지역 재생사업이 상업공간과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런던시는 197개의 중심 상업가로(High Street) 중 활성화된 가로와 그렇지 않은 가로를 조사해 중심가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임. 이의 일환으로 시의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공공미팅을 통해 197개의 중심 상업가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논의함.
  - 정부 통계에 의하면 런던 내 중심 상업가로 중 비어 있는 상업공간이 국가 전체적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에는 10개의 가게 중 1개가 비어 있는 상태임. 런던시는 중심 상업가로는 처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중심 상업가로의 혁신과 관리, ② 중심 상업가로 소매상이 처한

현안, ③ 중심 상업가로 사이트 방문, ④ 중심 상업가로 소매인과의 면담과 토론 등 4가지 차원에서 공공과 논의하게 됨.

- 市는 중심 상업가로의 소유주와 소매상, 주변 비즈니스 관련 업체가 공공미팅에 최대한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의견을 이메일 등으로 수렴하고 있음. 공공미팅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자료는 市의회 경제분과위원회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게 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calls-developers-deliver-lan-dmark-project-elephant-castle](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calls-developers-deliver-lan-dmark-project-elephant-castle))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support-londons-high-streets-agenda](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support-londons-high-streets-agenda))